

보도시점 (온라인) 2026. 5. 7.(목) 16:00
(지 면) 2026. 5. 8.(금) 조간

국가기록원, 132년 전 민중의 열망 담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되살려

-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소모사실」, 「사발통문」 등 복원·복제 지원
- 5월 7일(목) 소장처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복원·복제 기록물 전달
- 기록물 보존·활용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세계기록유산 기록물인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소모사실」, 「사발통문」 등 총 4건을 복원·복제하여 소장처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기관은 5월 7일(목)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자유와 평등,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던 동학농민혁명의 기록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물을 나누어 보유한 기관 간의 협력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2023년 등재된 185건의 관련 기록물 중 기념재단이 66건을, 국가기록원이 전봉준 판결문 등 5건을 보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복원·복제 및 관리 등을 통한 보존성 향상, ▲전시·교육·콘텐츠 개발 및 활용,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위한 교류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 조선 정부의 동학농민군 진압 기록인 「소모사실」 정밀 복원 거쳐 되살려

이번에 복원된 「소모사실(召募事實)」은 19세기 조선 정부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설치한 김산(현 경북 김천) 소모영(召募營)의 소모사였던 조시영(曹始永, 1843~1912년)이 1894년 11월 21일부터 1895년 1월까지

약 2개월간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면서 각급 기관과 주고 받은 구체적인 행적을 기록한 공문을 낱짜별로 정리한 일지 성격의 기록물이다.

조선 정부의 농민군 진압 방향과 규칙뿐만 아니라 농민군 지도자 재산을 몰수해 군수 비용으로 충당하거나 다섯 가구를 하나로 묶어 통제하는 ‘오가작통’을 실시한 향촌 사회의 실상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총 68매의 필사본인 「소모사실」은 크기는 가로 27cm× 세로 30cm이며, 앞표지와 내지 모두에 지름 10cm 크기의 세 마리의 말이 새겨진 삼마패(三馬牌)가 붉은색으로 찍혀 있다.

복원 전 표면 가장자리의 말림과 파손, 곰팡이와 수침 얼룩 등으로 훼손이 심한 상태였으나, 국가기록원은 2개월에 걸쳐 오염 물질 제거와 파손 부위 한지 보강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복원 후에는 원본 제본끈과 동일한 재질의 끈을 염료로 염색한 뒤 책의 오른쪽에 5개의 구멍을 뚫고 실로 엮는 전통 장정법인 오침안정법으로 제본하고 중성용 보존 폴더와 보존 상자에 담아 보존 수명을 연장했다.

>> 「사발통문」 등 대표 기록물 복제를 통한 전시 활용도 제고

기록물의 훼손을 예방하면서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사발통문」, 「유광화 편지」, 「한달문 편지」는 원본과 똑같은 복제본으로 제작했다.

1893년 11월 전봉준 등 20명이 주도자를 알 수 없도록 사발 돌레에 이름을 쓴 「사발통문」은 고부군수 조병갑을 비롯한 탐관오리를 벌하고, 전주영을 함락한 후에 서울로 진격한다는 내용의 거사 계획이 담긴 동학농민혁명의 대표적 기록물이다.

「유광화 편지」, 「한달문 편지」는 동학농민군이 직접 작성한 자필 편지로, 희소가치가 높다. 한자로 작성된 「유광화 편지」는 유교적 소양을 지닌 지식인이 지도자급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게 된 사상적 배경, 일본의 침략에 대한 인식 등이 나타나 있으며, 나주관아에 수감된 한달문의 한글 편지는 열악한 옥중 생활의 고통과 구명의 절박함을 전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원본을 고해상도로 전자화한 후 편집·보정을 거쳐 원본과 동일한 재질의 한지에 인쇄하여 외형을 완벽히 재현했다. 복제본을 전시에 활용함으로써 조명이나 습도에 의한 원본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높였다.

복원과 복제가 완료된 기록물은 고해상도 전자화를 실시해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 고품질의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장처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www.1894.or.kr)에서도 곧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국가기록물의 보존 수명을 연장하고 후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부터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82개 민간·공공기관의 기록물 3,942매를 처리했다.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은 “「소모사실」·「사발통문」·「유광화 편지」·「한달문 편지」가 국가기록원의 복원·복제를 통해, 후대에 안전하게 전승될 수 있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협력을 통해 기록유산의 공공적 가치와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132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을 맞아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의 복원·복제를 지원한 점을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소중한 기록유산들이 안전하게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관련 가치 있는 기록물 발굴과 보존·활용을 위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	책임자	과 장	고연석 (031-750-2209)
		담당자	연구관	양소은 (031-750-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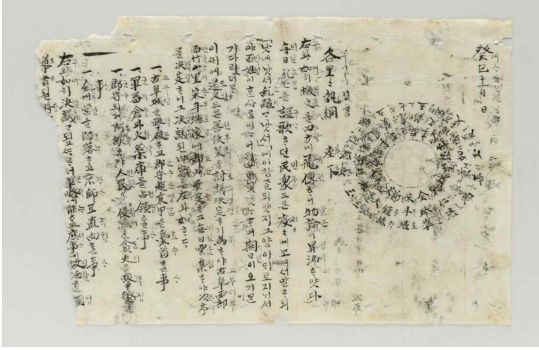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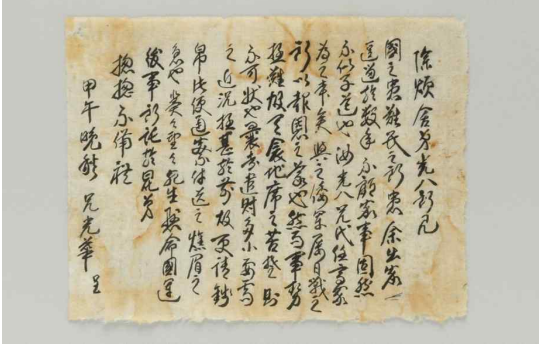
참고 1

소모사실 복원처리 사진



참고 2

「시발통문」, 「유광화 편지」, 「한달문 편지」 복제 사진

기록물명	원본	복제본
<p>시발통문</p>		
<p>유광화 편지</p>		
<p>한달문 편지</p>		